

# 蜂針療法の 基礎理論 및 各 症別 治療法③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研究會 會長

<집필자 註>이번호부터 '98동계양  
봉대학 교재에 수록지 않은 일부내  
용을 보강하였습니다.



고상기회장

미노산인 '드리프트판'으로부터 과학변  
화(科學變化)된 것이 '메라토닌'이란 물  
질이다.

이 '메라토닌'은 피로회복이나 활성효소  
(活性酵素)의 무독성 면역능력의 강화  
등으로 뇌세포의 발암저지(發癌沮止) 역  
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봉독에 포함되어 있는 '세로토  
닌'은 조속혈류(早速血流)에 편승해서 급속하게  
혈중농도를 높여주어서 '메라토닌'이 다량 분비  
됨으로써 봉침치료를 받은 날은 잠이 잘 온다는  
사실은 봉침요법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체험  
적으로 실감하는 사실이다.

또한 봉침요법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하  
는 모든 통증을 원인부터 해결해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질병의 치료혈만 사용해서  
는 원만한 치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치유  
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치료가 불가피하다. 봉  
침치료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치유력을 활성화시  
키는 기본치료법과 각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  
하는 각 증별 치료법으로 나누어 치료하고 있다.

## 4-1. 기본치료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 증별(症別) 치료에  
앞서 반드시 기본치료법을 먼저 시술한다.

기본혈이도(基本治療法) 그림참조

## 4-2. 각 증별 치료법

### 4-2-1. 감기(感氣)

감기란 한 마디로 코안, 목구멍, 숨길과 같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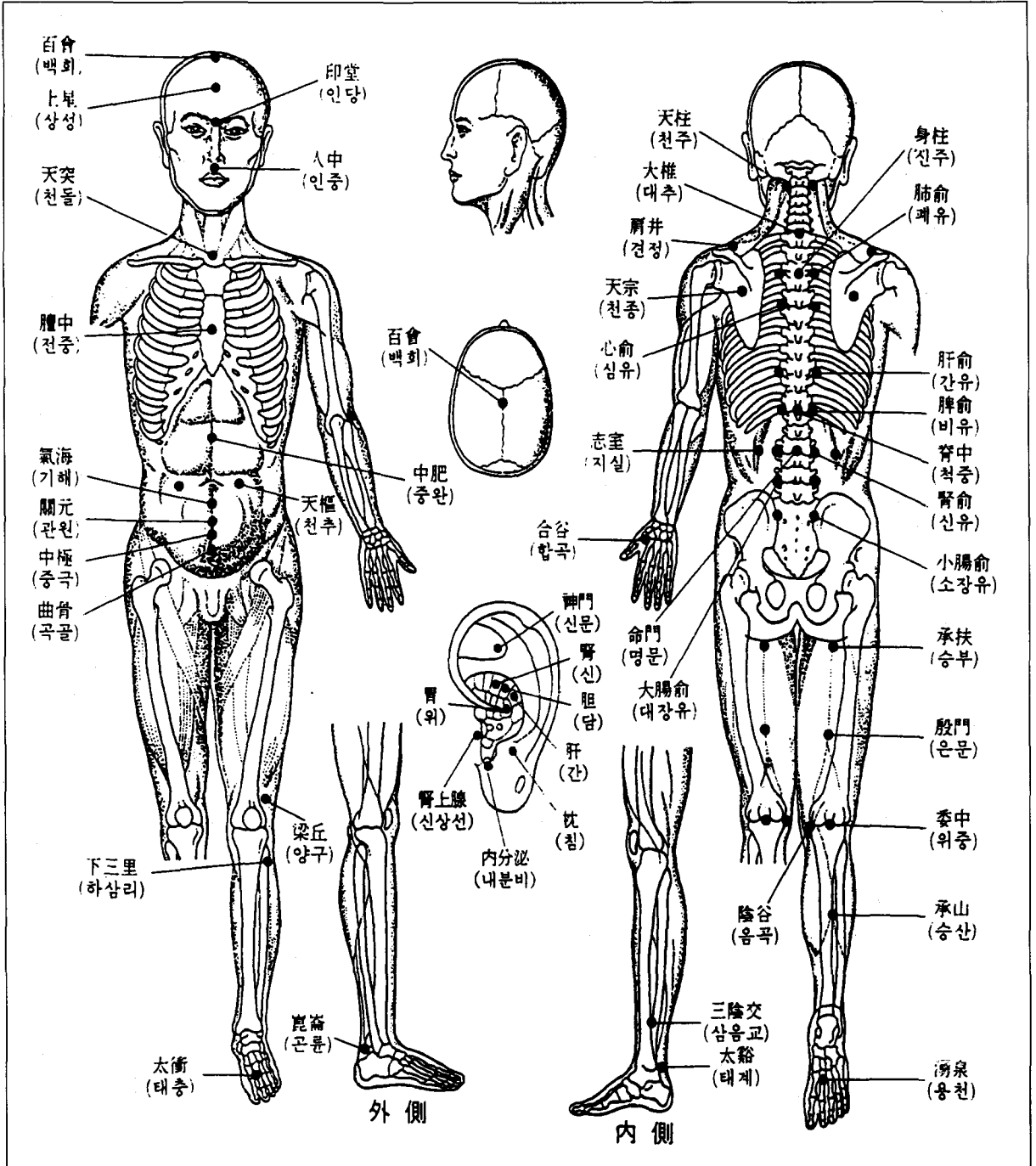
## 4. 봉침치료에 있어서 기본치료 법과 각 증별 치료법

봉침으로 각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서 단순히 봉침(蜂針)을 사람의 몸에 꽂음으로써  
일어나는 자극(刺激)만으로 병(病)이나 통증(痛  
症)이 낮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봉독(蜂毒) 즉, 봉침액(蜂針液)에는 꿀벌 특유의  
효소(酵素) 촉매(觸媒)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연  
자연의 '아미노산' 과학물질(科學物質), 즉 복합  
적 분자생물 생리활성물질(複合的 分子生物 生  
理活性物質)의 작용에 의해서 신경계(神經系)의  
부조(不調)라든가 접촉, 살균력이 배가(倍加)되  
어 바이러스성이나 화농성질환(化膿性疾患) 등  
에 탁월한 치유(治癒)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  
다.

이것은 봉침액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성  
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것을 인체의 생리  
학에 대비시킨 것으로 이러한 봉침요법 특유의  
작용에 의해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  
이 활성화되어 인체 스스로의 힘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이다.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봉독에는 "세로토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은 뇌신경전달물질(腦神經傳達物  
質)로서 '도파민'이란 물질의 과잉활동(過剩活  
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혈액에도 포  
함되어 있어서 혈관의 손상(損傷)에 의한 출혈  
(出血)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이 '세라토닌' 성  
분은 원래 우리들이 식사에서 섭취하는 필수 아

# 老化豫防 · 體力增強(基本穴)



상부기도(上部氣道)의 카타르성 염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그 대부분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지만 세균이나 그 밖의 것도 가끔 있다.

감기의 원인은 명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바이러스(여과성 병원체)로 인한 전염성 질환이며 2차적으로 여러가지 세균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 이외에도 의

기의 추위, 냉기, 특히 땀을 흘린 몸을 갑자기 찬 바람에 쏘이거나 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감기 초기에는 풍문(風門)으로 들어와서 풍지(風池)에 고여 있다가 풍부(風府)에 모여서 이것이 머리 속으로 들어가 몸 전체에 퍼져서 감기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몸의 허약에서 나온다.

발병은 급성으로 나타나며 갑자기 오한이 오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며, 목이 아프거나 따갑고, 37~38℃ 이상의 열이 난다. 또 온 몸이 노곤하고 머리가 무거워지거나 눈물과 결막염(結膜炎)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열은 보통 2~3일에, 머리 아픈 것이나 기분이 좋지 않는 증세는 4~5일이면 회복된다.

이러한 급성기 증세가 지나면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세균이 기관지에 들어가 세균성 기관지염이 생겨 기침도 하고, 담도 나오며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감기가 한 달 이상이나 계속되면 다른 병(예, 폐결핵 초기 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히 쉬는 것이 제일 좋다. 따뜻한 꿀물에 프로폴리스 1cc를 넣어서 마신다.

봉침치료는 먼저 봉침기본치료법에 의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감기에 대한 다음 각 혈에 치료한다. • 풍문(風門) • 신주(身柱) • 척택(尺澤) • 풍지(風池) • 풍부(風府) • 합곡(合谷) • 백회(百會) • 소상(少商)

#### 4-2-2. 두통(頭痛)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증세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진통제나 먹고 넘길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두통은 어떤 질환의 증세이지 그 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므로 두통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 것이다

뇌신경 이상에서 오는 두통, 머리와 목 주위의 근육통에서 오는 두통, 눈의 안내압(眼內壓)의 증가에서 오는 두통, 귀(耳)의 이상으로 오는 두통, 치통(齒痛)에서 오는 두통, 고혈압에서 오는

두통, 코의 이상에서 오는 두통 등 다양하다. 그 외 기혈불화(氣血不和), 경기조체(經氣阻滯)로 인한 두통도 많다. 또한 머리 전체가 아플 때와 후두통(後頭痛), 편두통(偏頭痛), 두정통(頭頂痛) 등 증세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치료는 먼저 봉침기본치료법에 의해서 치료하고, 그 다음 두통에 대한 기본혈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 나타나는 각 부위별로 치료한다.

①두통의 기본혈(基本穴)=백회(百會), 현노(懸顱), 천주(天柱), 태양(太陽), 합곡(合谷), 대추(大推)

②후두통(後頭痛)=풍지(風池), 곤운(昆崙), 후계(後溪)

③전두통(前頭痛)=두유(頭維), 인당(印堂), 상성(上星), 합곡(合谷), 내정(內庭), 태양(太陽)

④편두통(偏頭痛)=태양(太陽), 솔곡(率谷), 외관(外關), 족임음(足臨泣)

⑤두정통(頭頂痛)=백회(百會), 후계(後溪), 지음(至陰), 태충(太衝)

#### 4-2-3. 위·십이지장궤양-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消化性潰瘍)은 위액(胃液)의 산(酸)과 펩신에 접촉되는 소화관(消化管) 즉, 식도(食道)의 하부(下部), 위·십이지장 구부(胃·十二指腸 球部), 위(胃)와 소장(小腸)의 문합부(吻合部) 등의 벽이 허는 것을 말한다.

소화성궤양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두가지 요소 즉, 위산분비(胃酸分泌)와 위장조직(胃腸組織)의 저항력과의 상호관계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위장조직의 저항력이 강하면 위산이나 펩신의 분비가 항진되어도 궤양이 발생되지 않고, 반대로 위액 분비가 정상이거나 그 이하일지라도 궤양이 생기는 것은 위점막의 저항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화관 조직의 저항력이 감소되는 원인으로서는 위산의 자극, 자율신경 장애로 인한 국소 혈액공급의 감소나 체액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소화성궤양의 중요원인 중의 하나이다.

소화성궤양 증세의 특징으로는 상복부(上腹

部) 특히 명치 밑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또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만 불쾌감, 압박감, 혹은 팽만감이 있는 경우도 있다.

통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식도궤양(食道潰瘍)에서는 식사하는 동안, 혹은 식사후 즉시 통증이 나타나고, 위궤양(胃潰瘍)은 식사 30~60분 후에 속쓰림이나 통증이 나타나고, 십이지장궤양은 식사 2~3시간 후에 속쓰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밤에 통증이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이 야간통(夜間痛)은 보통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나타난다. 소화성궤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위내용물(胃內容物)에 섞여지는 위산(胃酸) 때문이다. 위산은 궤양면에 있는 말단신경의 통증하한계(痛症下限界)를 저하시켜서 나타난다. 혈관의 충혈도 통증하한계를 저하시킨다.

소화성 궤양의 정확한 동통부위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대개 위궤양에 있어서는 복통이 상복부 정중선(正中線)의 왼쪽, 혹은 왼쪽 상복부(上腹部)에 존재한다. 십이지장궤양에서는 통증이 정중선의 오른쪽 혹은 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위치하고 때로는 왼쪽 상복부 또는 오른쪽 하복부로 통증이 뻗친다. 식도궤양에서는 보통 명치 밑이 아프다.

궤양통의 또 다른 특징은 만성적이고 주기적 이란 것이다. 궤양환자의 병력(病歷)을 보면 보통 5~8년이고, 긴 경우는 20~30년간 고생한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수일 혹은 수주(數週) 동안 계속해서 아프다가 얼마동안은 아프지 않고 다시 재발하여 아프기 시작하고 흔히 봄과 가을에는 악화하는 것을 본다. 그 원인은 요즘 새로 발견된 '헬리코박트' 균에 의해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치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치료에 있어서도 궤양 자체를 치료하기에 앞서 위산분비의 적정수준으로의 억제와 위산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헬리코박트' 균을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안정이 절대적

이다.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장점막(胃腸粘膜)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므로 육체적 안정과 정신적인 긴장완화는 소화성궤양 치료에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에는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궤양치료에 사용되는 음식은 위산분비에 대한 자극이 약하고 위내의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강하며 화학적, 기계적 또는 온열적(溫熱的) 자극(刺戟)이 적은 것이라야 하고,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하며,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백질 및 비타민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음식은 소량을 자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음식물에 의한 위산중화에 있어서 일어나는 분비자극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위운동(胃運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식이요법에서는 음식물을 매 시간 투여하는데, 이것은 치료 초기에는 특히 필요한 것이다.

식이요법의 실제에 있어서

①제1일~5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마다 기본식인 미음 200cc를 주고 매식후 30분마다 로얄제리 1cc, 프로폴리스 0.5cc, 꿀 20cc를 혼합해서 먹인다.

②제6일~14일째는 기본식에 흰죽을 한끼씩 처음에는 점심만 주어 2~3일 계속하고, 다음은 저녁에도 죽을 주고, 또 2~3일 계속한 다음 아침에도 죽을 준다. 세끼 죽을 줄 때에는 미음의 횡수를 줄이고, 이 때에도 매식후 30분마다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꿀을 복용시킨다.

③15일~28째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서히 밥으로 바꾼다. 물론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꿀은 계속 복용시킨다.

위에서 말한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봉침치료를 계속한다. 봉침치료혈(蜂針治療穴)은 다음과 같다.

• 중완(中腕) • 양문(梁門) • 불용(不容) • 장문(章門) • 간유(肝俞) • 비유(脾俞) • 차료(次膠) • 양구(梁丘) • 위창(胃倉) • 하완(下腕) • 지기(地機) • 음백(陰白) • 거궤(巨闕) • 신주(身柱) • 양지(陽池)

다음호에 계속